

같은 크기, 용량 1.5배... 삼성, 반도체 패키징도 '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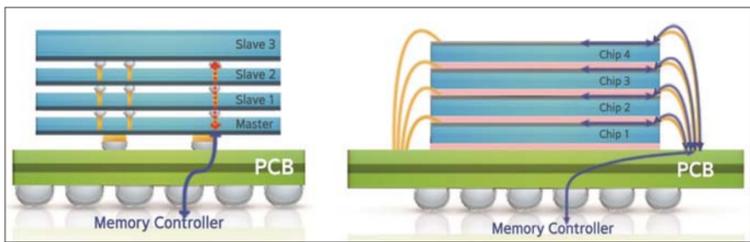
‘12단 3D-TSV’ 기술 세계 최초 개발 16Gb D램칩 사용시 24GB 가능할듯 전송 속도 높이고 소비전력 개선

삼성전자가 패키징 기술에서도 ‘초격차’를 증명해냈다. 더 작고 빠른 PC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 최초로 ‘12단 3D-TSV(3차원 실리콘 관통전극)’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이용해 업계 표준인 고대역폭 메모리(HBM)2와 동일한 두께(720μm)로도 50% 이상 용량을 높이면서도 빠르고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고용량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최신 제품인 16Gb D램칩을 사용하면 업계 최대 용량인 24GB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도 구현할 수 있을 것



삼성전자가 새로 개발한 3D-TSV(왼쪽)와 종전에 쓰던 와이어본딩 패키지 기술 비교 사진.

망이다. 현재 주력제품인 8단 8GB 제품보다도 3배나 많은 용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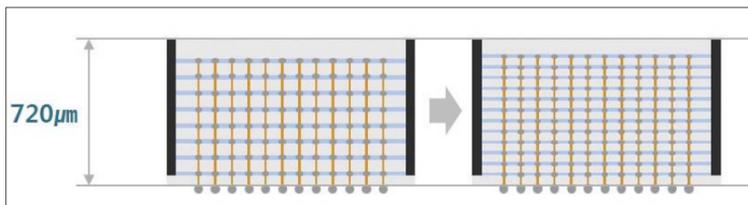
삼성전자는 고객수요에 따라 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적기에 공급해 프리미엄 반도체 시장 선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패키징은 생산된 반도체를 상품화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칩 형태인 반도체 여러개를 기판 등과 함께 묶어 PC와 서버 등에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칩 상단과 하단에

전자 이동 통로(TSV) 6만개를 만들어 서로를 오차없이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종전에는 금선으로 칩을 연결해 적지않은 면적을 할당해야 했지만, 머리카락 굵기 20분의 1수준 TSV를 사용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 기술은 면적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전송 속도도 높였다. 종전 방법보다 전송 거리가 짧아 신호를 주고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전력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3D-TSV 기술을 사용한 기존 표준 규격을 지키면서도 용량을 50% 더 늘릴 수 있다. 기존 8단 구조(왼쪽)와 새로운 12단 구조 비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100나노미터인 종이 두께보다 절반 이하로 가공한 D램칩 12개를 적층하고 수직으로 연결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다. 반도체 패키징 업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면서 서버 업계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더 작은 서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 사용도

늘어나면서 더 빠른 메모리 필요성도 꾸준히 대두돼왔다.

삼성전자 DS부문 TSP총괄 백홍주 부사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HPC(고성능 컴퓨팅) 등 다양한 응용처에서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12단 3D-TSV 기술’로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아시아나, ‘인천-가오슝’ 정기 노선 전환

아시아나항공이 부정기편을 정기 노선으로 전환해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가오슝 노선을 정기 노선으로 운항한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달 24일부터 A321 항공기를 투입해 매일 운항하고 있는 인천-가오슝 부정기편을 동계 여객 스케줄이 적용되는 이달 27일부터 정기노선으로 전환해 주 7회 운항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인천-타이베이 노선을 매일 2회 운항하고 있어 ▲인천-가오슝 노선의 정기 취항 ▲인천-

타이중 노선의 부정기편 운항 등을 통해 대만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스케줄 선택지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인천-가오슝 정기 취항을 기념해 이달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글로벌 자유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클룩과 함께 여행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만 액티비티 상품의 경우 12% 즉시 할인이 적용되며 대만을 제외한 전세계 액티비티 상품의 경우 10% 즉시 할인이 제공된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

코트라, 사회적 가치 위한 비전 제시

일자리·상생협력 등 4개 발표

코트라(KOTRA)는 서울 서초구 영곡동 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2.0 추진 체계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위한 보다 정교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코트라는 사회적 가치 2.0으로 ▲국내외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포용적 상생협력 실현 ▲사회적약자 글로벌화 ▲사회적 책임 확산 등 4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코트라는 업무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선택·집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서비스 문턱도 낮춰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 소재 중소기업, 협력사

등을 위한 ‘글로벌 역량 제고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다듬었다.

이 외에도 코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원리로 삼고 추진 과제를 수립·시행·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가치 추진 우수사례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필요를 절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 외부 자문위원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 안전, 윤리경영 분야에서 전문가 8명이 추가로 위촉됐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범국가적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국민 요구에 더욱 귀기울이면서 국내외에서 상생·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SK텔레콤

‘우리말 교육책’ 출간

SK텔레콤이 10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통신 용어 등을 바른 우리말로 쓰자는 내용의 ‘우리말 교육책’을 출간, 구성원에게 배포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사람 잡는 글쓰기’란 제목의 책을 펴내고 현재까지 SK텔레콤, SK ICT 패밀리사, SK텔레콤 자회사 구성원에게 총 1200여부를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책 제목엔 ‘고객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를 하자’의 의미를 담았다. 이 책은 고객 대상 커뮤니케이션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 UX그룹이 펴냈다.

어려운 한자어·외래어·전문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내용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담겼다.

/김나인 기자 silkni@



르노삼성 판매 대리점 영업 직원이 ‘e-베스트’를 이용해 고객에게 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e-베스트’로 고객 응대

르노삼성차 모바일 영업관리 어플

르노삼성자동차가 판매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모바일 영업관리 시스템 ‘e-베스트(e-BEST)’를 도입한다.

‘e-베스트’는 기존에 PC 또는 종이 계약서 기반으로 진행해온 영업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시켜 언제 어디서나 고객 응대가 가능하도록 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국 영업지점 및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과의

소통이 가능해졌다.

‘e-베스트’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기존 종이 계약서 작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 정보 보안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실시간으로 차량 재고 조회부터 견적 생성, 고객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 보다 정확한 상담과 적극적 고객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한편 르노삼성은 최근 컨슈머인사이드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자동차 판매(SSQ) 서비스만족도 조사에서 18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인기 웹소설, 김윤석·수애 연기로 만난다

네이버, 한달간 브랜드 캠페인 배우 이제훈, 변요한 각각 출연

‘중증외상센터’의 외상외과 전문의가 된 배우 김윤석, ‘재혼황후’를 꿈꾸는 배우 수애, ‘혼전계약서’의 주인공이 된 배우 이제훈과 ‘장씨세가 호위무사’가 된 배우 변요한이 각자 맡은 웹소설 속 주인공을 연기한다.

네이버 시리즈는 7일부터 ‘네이버 시리즈에서 인생작을 만나다’라는 브랜드 캠페인을 한 달간 진행한다.

영화배우 김윤석, 수애, 이제훈, 변요한이 각 웹소설의 주인공으로 출연해 웹소설이 몰입감 높고 영화화 되어도 손색 없는 콘텐츠라는 것을 TV광고를 통해 알린다.

우선, 배우 김윤석은 웹소설 ‘중증외상센터:골드아이’의 외상외과 전문의



네이버 브랜드 캠페인 포스터.

/네이버

백강혁으로 나선다.

배우 수애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웹소설 ‘재혼황후’편은 변심한 황제의 결을 떠나 자신의 삶을 열어가려는 황후 ‘나비에’의 이야기를 다뤘다. 재혼황후 연재 기간 내내 로맨스 판타지 장르 1,2위를 놓치지 않는 인기 작품이다.

이제훈은 네이버 시리즈 플러다작가의 신작 웹소설 ‘혼전계약서’의 남주인

공으로 차가우면서도 로맨틱한 주인공 한무결 역을 연기한다.

마지막으로 변요한은 호위무사로 나선다.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 ‘장씨세가 호위무사’는 은둔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주인공 광휘가 몰락하던 상인 집안인 장씨세가의 호위무사로 발탁되어 벌어지는 내용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